

다산포럼

2019년 한국 경제의 전망과 진로



전향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신년 벽두부터 2019년 한국 경제 전망과 관련, 다양한 견해가 속출되고 있다. 한쪽에서 '위기론'을 제기하면 다른 쪽에서는 '엄중론'으로 응수하지만 양쪽 다 한국 경제가 녹록치 않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2019 한국 경제의 대외 여건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중 통상 마찰, 반도체 사이클의 현 국면, 세계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 미·중·일의 거시경제 여건 등이다. 대체로 한국 경제를 진단할 때는 늘 공급과 수요 두 측면을 동시에 들여다봐야 한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 경제는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전자 및 반도체, 조선 등 주요 핵심 제조업에서 재벌계 거대 기업의 성과에 기대어 제조업

세계 5대 강국의 면모를 유지해 왔다. 그렇다면 지난 10여 년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겨나고 있을까? 우선 신자유주의적 금융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비약적으로 상향 전진해 왔다. 이에 비해 한국은 이한·미·중·일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에서 근 10년 동안 상향 전진을 하지 못한 채 갇혀 있다. 잠재 GDP 증가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구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 약화가 모두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조업에서의 세계 강국이라는 힘 지위와 면모를 유지함과 동시에 제조업의 첨단 고도화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긴 호흡과 인내로 총요소생산성과 혁신 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탈산업화·서비스화의 추세 속에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국제 경쟁력을 본계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한국 경제의 수요 측면에서의 딜레마도 공급 측면의 애로 못지않게 구조적이고 악성이다. 가계 소비의 탄탄한 뒷받

침이 안정적인 총수요의 확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계 소비는 심각한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우선 총수요 구성 요소 중 가계 소비의 비중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다음으로 경제 성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출이 국내 소비와 긴밀한 연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셋째 더 우려스러운 것은 세대별로 볼 때, 한창 많이 소비해야 할 60대 이후 노년층들의 소비 능력(여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한국의 60대 이후 노년층 소비 성향이 중년층에 비해 훨씬 낮다. 60세 이후 한국 노년층 소비 성향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봐도 일본의 노년층에 비해 훨씬 낮다. 한국 경제에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우선 한국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7%로 OECD 평균 약 1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둘째,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액 비율도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이외에도 1인당 평균 공적 연금 급여액도 아주 형편없는 수준인데 일본의 5분지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60대

이후 노인들의 공적 연금 급여가 취약하고 퇴직 후 수입원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60대 이후 노년층의 낮은 소비 성향과 소비 둔화가 소득 주도 성장 체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리 만무하다. 노인 빈곤을 해소하고 노인의 소비 성향 제고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정교한 사회 보장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공적 연금 제도(국민연금)의 강화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동시에 단·중기적으로 사회 복지 지출을 중심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객관적인 재정 여건을 볼 때, OECD 국가 중 한국의 재정수지는 그래도 상당히 견전해 재정 지출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재정 지출의 확대에 아주 인색해 결과적으로 재정 운용을 더 긴축적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과연 현 정부가 노동 정책, 사회 복지 정책, 새로운 산업 정책, 금융 정책 등 제반 정책들의 상호 보완성과 연계성 속에서 재정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기고

단힌 마음의 문 활짝 열고



양홍
수필가·현대문예작가회 회장

우리는 오랫동안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힌 세계에 살고 있다. 동과 서, 남과 북이 서로 길이 막히고 문이 닫혀 있다. 나라와 나라, 인종과 인종의 문이 막히고, 빈부의 격차, 이데올로기의 높은 장벽에 문이 닫혀 있다. 결국, 그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를 향한 모든 길, 밖으로 뚫힌 모든 문이 닫힌 것은 우리 자신이 안으로 문을 닫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나다니엘 호손의 작품에 '목사의 검은 너울'이란 단편이 있다. 검은 너울을 쓴 젊은 목사의 얘기다. 은혜로운 설교를 할 때, 경건한 성례를 집례 할 때, 혼인과 장례를 주례할 때도, 또한 잘 때까지도 그는 이 너울을 벗지 않았다. 신사들은 경원하였고 부인들은 동정도하고 수군거리며 어린이들은 이상해서 무서워

도망하고 사랑하는 약혼자까지도 이 너울을 벗기지 못해서 결국 떠나가고 만다.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까지도 친구 목사가 너울을 벗기려 할 때 그는 완강히 거부하며 말한다. "왜 나보고만 너울을 벗으라고 하는가. 당신들도 다 너울을 쓰고 있지 않는가. 누구나 죽기까지 벗지 않는 너울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친구 간에, 부자 간에, 사제 간에, 부부 간에, 나와 나,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에게 너울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못주고 못 받고 오히려 세계가 전부 막혀 버린 것이다. 세계 자체도 시간의 베일을 벗길 자가 없어서 다 음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공간의 너울을 벗길 자가 없어서 바로 이웃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마주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도 상대편이 지금 마음 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사람들이다.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고이나 악의가 아니라도 불가피하게 자기를 가리고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에게 서로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시간과 영원, 육체와 영혼, 물질과 정신, 현실과 이상, 상대와 절대의

세계, 삶과 죽음 사이의 문을 굳게 닫아 버리고 있는 것이다. 문을 닫은 결과 인간은 자의를 상실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자기도 덩지도 않은 미지근한 사람, 즉 신념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뜨거운 열정도 의욕도 없는 사람이다. 자기 주체성도 행동도 잃어버린 미지근한, 무기력한 햄릿형의 자기 상실중에 걸린 사람들이다. 이들은 그 대신 모든 신경을 안테나처럼 곤두세우고 밖에서 오는 정보 수신에 열중이다. 남이 뭐라고 하나 여론과 인기에 관심하고, 남이 어떻게 보나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관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면이 텅 비어 있다. 전파탐지기적 자기 상실증이다. 사람은 차라리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한다. 뜨거우이런 문을 열고 세계와 이웃을 만남으로써 마음에 뜨거움을 체험 하라는 것이다. 진리를 깨닫고 감격과 신념을 가지라는 의미다. 생명의 약동, 열정의 불, 그리고 의욕과 용기에 찬 행동 을 가지라는 것이다. 현대 인간은 자기를 모르는 데서 오는 자기 상실증 환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사실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

하고 눈 멀고 발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자기도취, 과대망상, 유아독존에 빠진 돈키호테형의 자기 상실증이다. 모든 극단적인 보수주의나 급진주의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소산이다. 극단적인 정통주의, 자유주의, 신비주의 사상도 이런 정신의 온상에서 배양된다. 이런 독선과 배타는 공동체로 하여금 불행한 파당과 분열, 대립과 투쟁의 요인이 되고 국가로 하여금 제국주의, 공산주의, 극수주의 등 모든 독재와 침략의 요인이 된다. 우리는 또다시 새해를 맞이했다. 수많은 기원을 새해의 제단에 드리고 출발을 서원해야 하겠다. 새롭게 마음과 생활을 정리하고 꿈을 설계하고 새로운 결심으로 출발해야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자.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대화와 사랑을 주고받는다면 평화, 자유, 정의, 평등, 복의 문이 활짝 열리고 같이 트일 것이다. 올해도 우리는 햇볕처럼 정의감에 불타서 모든 사회악에 도전해야 한다. 우리는 작은 반도에서 태어났지만 대륙을 향한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철도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문을 활짝 열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는 2019년 새해로 살자.

청춘 특·특

새해를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



최화진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 돼지의 해'가 밝았다. 풍요와 복(福)을 상징하는 돼지에 황금빛 기운까지 더해져,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큰 기대를 안고 새해를 맞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황금 돼지가 가져다 주길 바라는 풍요와 복은 무엇일까?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공개한 연령대 별 '기해년 성공의 기준'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10대는 '성공한 아버지가 있는가'를 성공의 기준이라고 답했다. 20대는 '좋은 학벌', 30대 '좋은 직장', 40대는 '술자리 2자를 살 수 있는가'를 성공의 기준으로 꼽았다.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도 물질적인 풍요와 복이 성공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대다수 사람들에게 물질의 풍요는 자신에게 더 많은 기회와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옳고 그름을 떠나 물질은 인간에게 풍요로움과 여유를 준다는 점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다. 이 같이 황금 돼지 캐릭터의 인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와 풍요로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영동하고 이상한 일일까. 이런 생각 끝에 나의 2018년 한해를 돌아봤다. 새롭게 도전했던 일들, 계획했던 일을 실천했던 때의 기분,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졌던 때 등 다양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장학금을 받고 해외연수를 다녀왔던 때의 뿌듯함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오히려 '봉사 활동'이

었다. 지난해 10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날씨가 제법 쌀쌀했던 날 우연한 기회에 한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홀로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겨울을 맞아 연탄을 배달해주는 일이었다. 첫 번째 방문한 집의 주인인 할머니는 우리에게 "몸이 불편하지 않았다면 음료수라도 사왔을 텐데"라며 미안한 마음과 감사 인사를 연신 건넸다. 봉사 활동을 마치고 나올 땐 "줄 수 있는 게 이것 뿐"이라며 빵과 사과를 한 아름 안겨줬다. 고마워하시는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고, 조그만 수고의 대가로 과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한편으론 왜 이런 일을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는 마음도 생겼다. 두 번째 방문한 곳은 큰강아지를 키우는 할아버지 댁이었다. 연탄을 보관하는 장소가 집 안 깊숙하게 있어 첫 번째 집을 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 손주 같은 학생들이 길게 한 줄로 늘어서 연탄을 나르는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는 "많이

힘들겠다. 정말 고맙다. 자네들 덕분에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가 곱다란 겨운 빵과 사과와 무개, 미소를 짓던 할아버지의 깊은 주름은 아직도 잊지 않는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그날의 따뜻함과 감동이 느껴진다. 큰 결심을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도 아니었지만 나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과 행복을 느꼈다. 그 시간은 소중한 경험이 됐고, 무엇보다 마음이 풍요로워졌다. 그리고 여전히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누구나 새해 많은 계획을 세웠겠지만 봉사 활동을 추가하기를 적극 추천한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느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간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일과도 같다. 뿌릴 때 자기에게도 몇 방울 정도는 묻기 때문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다.

社說

시도 산하 기관장 물갈이 '보은 인사' 지양을

광주시·전남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물갈이 인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시도 산하 핵심 기관의 주요 인사 공모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의 경우 공석이 된 공공기관장은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 광주복지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네 곳이다. 전남도는 강진의료원장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에 대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과연 이번에는말로 '낙하산 인사'를 근절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과거에 보면 단체장이 바뀌면 때마다 늘 측근에 대한 보은 인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의 경우 전혀 전문성이 없는 시장 캠프 출신 전직 국회의원이 내정됐다던가 시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자질 논란으로 사퇴하는 파동을 겪었다. 이에 따라 광주환경공단은 다시 '이사장 모집 공고'를 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은 최근 두 차례 공모 절차를 거쳤으나 '적격자

없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최근 3차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역시 지난해 말 전임 사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사장과 기술본부장, 비상임이사 등 임원 후보 모집 공고를 냈다. 광주복지재단은 대표와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진들이 동시에 공석이 되면서 공모모와 절차가 커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광주시사는 민주인권평화국장·노동협력관·대변인·문화예술회관장에 대한 개방형직위 공모에 나선다. 이 모두 한결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들이다. 한데 벌써부터 해묵은 고질인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선거 캠프 인사나 퇴직 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해 전리품 행거나 신하 기관을 유린해서는 안 된다. 미리 내정해 놓고 공모 절차만 밟는 과거의 행태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그야말로 공정하게 전문적인 인사를 뽑아 그동안 외쳐 온 혁신이구두선(口頭禪)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당 추천 위원들 5·18 진실 규명 협력해야

자유한국당이 어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으로 군·언론·법조인 출신 3명을 추천했다. 특별법 시행 4개월만의 특강 추천이다. 한때 추천된 인사 중 일부는 5·18을 왜곡하거나 폄하한 전력에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추천하면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균형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 국민 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두 아홉 명으로 구성되는 5·18 진상조사위는 일단 조만간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장(1명)과 더불어 어민주당(4명), 바른미래당(1명) 등은 이미 추천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추천 과정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나 1980년 5월 당시 공수부대 지휘관이었던 인사를 제외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번엔 추천된 인사 중에는 과거 검찰의 5·18 재수사 결과와 관련 언론 보도가 왜곡됐다는 주장을 퍼거나, '임을 위한 행진곡'이 대한민국 정치 체제를 부정한다는 입장을 보인 이들도 포함돼 있어 진상 규명에 되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민주평화당은 이런 점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이 임명 과정에서 특별법이 규정하는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사위는 그동안 국회, 검찰, 국방부 등을 통한 수차례 조사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발포 명령자와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 인권 유린 등 핵심 의혹을 규명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실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한국당 추천 위원들도 역사적임을 갖고 국가 차원의 완전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입덧이 심할 때 엄마가 해 주시던 '겉절이'와 '폴치(갈치 새끼) 조림'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일용염니 로 널리 알려진 진배우 김수미(70)는 20대에 임신을 했을 때 어머니의 '손맛'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가 고등학교 시절, 이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안 계셨다. 그때부터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 주시던 음식들을 하나둘씩 손수 만들어 보기 시작했다. 기억을 더듬어 흥내를 내 보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차츰 어머니의 손맛을 터득할 수 있게 됐다.

어머니의 손맛

어머님 수미네 반찬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레시피를 선보이고 있는 그녀는 녹화 현장에서 '아마도 '어머니'라는 감성을 건드려서 시청자들이 더 좋아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안도현 시인은 '예전 태평추'라는 시(詩)에서 객지를 떠돌며 30년 넘도록 입에 대 보지 못한 음식 하나를 소개한다. 어릴 적 예전 외갓집에서 겨울에만 먹었던 '태평추'라는 음식이다. "...태평추는 채로 썬 목에다 뜨끈한 멸치 국물 육수를 붓고 볶은 돼지고기와 목은지를 넣은 뒤 김가루와 깨소금을 얹어 숟가락으로 훌

훌 떠먹는 음식인데 눈 많이 오는 추운 날 점심때쯤 먹으면 더할 수 없이 맛이 좋았다." 그는 또한 '돼지고기 두어 근 끓여 왔다는 말'이라는 시에서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어린 시절의 흐릿한 정경을 그려 낸다. "어릴 때, 두 손으로 받들고 싶도록 반가운 말은 저녁 무렵 아버지가 돼지고기 두어 근 끓여 왔다는 말/...가장으로서의 자랑도 아니고 허세도 아니고 애정이나 연민 따위 더더구나 아니고 다만 시터득할 수 있게 됐다. 갑고 고독하고 웬지 원시원한 어떤 절단 같아서 좋았던, 그 말..." 요즘 채널을 이리저리 둘러다 보면 온통 '떡방' (먹는 방송)이다. 누구나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찾고, 부득이 '혼밥'을 먹어야 하는 세대 속에서 어머니의 손맛이란 유투피어와 같다. 그러나 노배우가 방송을 통해 요리하는 고사리 굴비조림과 목은지볶음, 간장계장 등은 누군가에게 엄마가 어린 자신에게 해 준 '인생 음식'일 수도 있다. 어머니의 손맛은 수구초심(首途初心) 같은 근원적맛의 고향이자 혀의 뿌리일 것이다. /송기동 문화2부장·편집부국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고문의 062-227-9600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자사 지역(국통선 배달 안배))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